

국가기록관리 정책포럼 토론문

나창호 연구관(국가기록원)

○ 지나온 세월에 대한 단상

99년 초 어느 때쯤인가 선배에게 전해들은 교육원 신입생 모집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지금까지 민간에서 5년, 기관에서 7년, 기록원에서 8년이란 긴 세월을 기록관리라는 운동장에서 뛰면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

참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 기록관리 영역에서 공동체란 존재하는 것인가?

사전적 의미로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며 공존할 때 그 조직을 말하는 것이며, 상호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갈등 조정이 중요한 관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해서 볼 때 ‘99년 법 제정, ‘05년 전문요원의 진출이라는 기록관리 도입기에는 분명 이 땅에 기록관리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세력이 존재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정서적 유대감과 이해관계를 가졌던 공동체가 존재했었다. 아니 존재했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공동체 내에서 갈등 관계, 정확히 말하자면 제도를 다루는 국가기록원과 현장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요원과의 갈등관계가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갈등의 조정이 실패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갈등 구조가 현장의 전문요원이 증가하고 기록관리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08년 이후 기록관리가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조정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달려왔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공동체는 존재하나 그 바라보는 지점이 같은 산봉우리라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이 지점에 있다.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어야 할지 지금까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두의 지혜를 모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지난 해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다. 20년의 짧은 역사의 절반이 적폐라는 단어 하나로 압축되었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기록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기록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정치적 중립이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

가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조선왕조실록은 과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록일까? 현장에서 그리고 강사로 강단에서 교육생을 앞에 두고 우리 민족의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얘기하며 왕조실록을 예로 들고 심지어 수정한 후에도 수정 전 실록을 함께 보관했던 선조들의 지혜와 용기를 들어 기록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 하곤 했다.

과연 진실이었을까? 선조실록은 왜 수정되어야만 했을까? 수정된 내용에서 이순신과 원균에 대한 평가는 왜 그리 달랐을까? 그래도 기록이, 그리고 기록을 토대로 쓰여진 실록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현명한 가르침을 바란다.

미래를 바라보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20년 전 우리는 기록관리라는 새로운 문화를 이 땅에 심기 시작했다. 아니 사무관리라는 행정업무 차원의 문서관리를 새로운 기록관리의 영역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척박한 토양에서 너무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현장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비명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교육원 재학 중 들었던 말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현장에서 기록관리를 뿌리내리기 위해 투쟁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개의 투사를 현장에 투입하고 그들이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법과 제도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제하는 규범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정적 관점에서 기록관리로 시작했다면 20년마다 짓기를 반복하는 이세신궁처럼 우리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만든 기록관리라는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수고를 반복하며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새롭게 시작하려는 중장기 발전전략은 지금까지 안락함을 제공했던 구태의 기록관리라는 집을 허물어 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중장기 발전전략은 이런 용기를 담아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기록공동체가 바로 서야 희망이 있다.

기실 지난 20년 기록관리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공적영역에서 외형적 성장이 중심이 되었다. 최근 들어 기록관리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폭발하며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논외로 하고자 한다.

이제 외형적 성장에 걸 맞는 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 기록원도, 현장의 기록관도 그 내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그리고 그 역량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99년 법 제정 이후 05년, 17년 혁신이란 목표 하에 기록관리의 질적 발전을 추구해왔으나, 모두의 바람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산을 오르다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잘못된 능선으로 갈 수도 있다. 등반대장의 무능을 탓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던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한 곳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난 17년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전반적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록관리도 이 변화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가기록관리의 양대축인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기관장이 20년간 내려왔던 민간의 기록관리 전문가로 바뀌었고, 수년의 노력 끝에 서울과 경남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도 설치되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지방에서 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많은 일들이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영남 교수의 발표에서처럼 이제는 남에 집에 들어가 그들이 언어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기록공동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같지만 다른 ‘틀린 그림찾기’와 ‘다른 그림 찾기’가 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잘못된 것, 틀린 것으로 바라보던 세대였다. 지금 우리 자식 세대는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한다. 서로의 모습을 보며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모습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틀린 그림을 찾아왔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기록관리가 이 땅에 올바르게 정착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틀린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을 찾고 있는 중일 것이다. 입장의 차이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임을 인정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공동체가 아닐까

한 톨의 솔 씨가 남산의 낙락장송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파에 흔들려야 할까? 그 어린 어린 소나무가 비바람에 흔들린다고 갈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땅의 기록관리는 뿌리 내리지 못한 한 톨의 솔씨에서 나온 어린 새싹과도 같다. 비바람에 흔들려 뿌리채 뽑히지 않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가야할 때가 아닌가 물으며 마치고자 한다.